

四端論에 나타난 人間觀에 대한 考察

李相基*·吳相德*·宋正模*

I. 緒 論

四象醫學에 대하여 宋¹⁾은 既存의 證治醫學이 黃老之學에 바탕을 둔 黃帝內經에 그 原理의 原型을 두어 宇宙 自然의 秩序와 運行 原理가 人體에 그대로 適用된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陰陽五行의 循環原理에 입각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四象醫學은 儒學的 思考에서 출발함으로 인하여 宇宙의 秩序보다 人間 社會의 關係, 즉 人間の 倫理 道德에 기초한 哲學을 背景으로 하고, 四象類型的인 氣의 升降 原理에 입각하여 형성된 醫學이라고 하였다.

또한 宋²⁾은 內經의 五態人論이 道教 思想의 바탕하에 相生相剋의 陰陽五行說에 근거한 陰陽의 輕重으로 구분한 것이라면, 四象醫學의 四象人은 기존 性理學에서 탈피한 改新儒學의 事心身物論에 근거한 性情의 편차를 心身의 類型으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四象醫學의 人間觀이 內經醫學과 다른

것은 醫學의 바탕이 되는 基本 哲學이 다르기 때문인데, 四象醫學의 哲學的 背景이 既存의 儒學에 바탕을 둔 李濟馬의 獨創的인 四象說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四象醫學의 原理에 해당되는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과 四端論에는 이러한 李濟馬의 四象哲學에 의한 새로운 人間觀이 담겨 있다.

李³⁾는 性命論을 解釋하면서 李濟馬의 四象說은 四元構造의 新人間學이라고 해야 할는지 모른다고 하고, 이러한 그의 四象說의 新人間學은 한 인간을 身體의 構造와 生理的 機能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서는 人間の 倫理的 生活의 근원으로서의 好善 惡惡과 宇宙論的 原理로서의 性命을 根幹으로 하는 全體의 構造의 統一體로 간주했다는 데에서 獨創의 一面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李濟馬는 性命論에서 사람은 責心 責氣의 노력의 정도에 따라 心體之清濁과 氣宇之強弱이 결정되고 人格의 等級이 정해진다고 보았고, 知行의 修不修에 따라 人性의 善惡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宋⁴⁾

*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1.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4-1, 1992, p.5.
2. 宋一柄, 알기 쉬운 四象醫學, p.126, 130.
3.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杏林出版, 1994, p.18.
4. 宋一柄, 東武 李濟馬의 學文思想, 四象醫學會誌, VOL8-2, 1996, p.1.

은 性命論이 責心을 통하여 存心養性의 知를 쌓고, 責氣를 통하여 修身立命의 行을 닦으면 道德의 경지에 이르고 道德을 쌓으면 仁聖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여 '下學而上達'의 精神을 제시하였다 고 하였고, 모든 知行의 行動은 心身の 自律的 知行을 통한 性命의 완성이 李濟馬의 人性論의 목표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性命論에서 제시한 人性論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方法論인 내용이 논리 전개상 四端論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을 알 수 있는데, 四端論에서는 "哀怒喜樂의 暴動·浪動이 모두 行身不誠과 知人不明에서 나온다"고 하여 哀怒喜樂의 갈등이 모두 知行의 不備에서 온다고 보고, 四象人의 體質的 知行을 통하여 이를 豫防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哀怒喜樂의 中節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性命論이 人間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當爲성과 目標을 중심으로 論한 것이라면, 四端論은 그것에 대한 方法論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저자는 이러한 觀點을 바탕으로 四端論에 제시된 李濟馬의 人間觀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四端의 意味와 四端論의 論理 構造에 대해 分析하고, 四端論에 언급된 主要 概念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四端論에 나타난 李濟馬의 人間觀에 대하여 약간의 지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本 論

1. 四端의 意味와 四端論의 論理 構造에 대한 分析

(1) 四端의 意味

孟子는 "사람이 四端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四體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⁵⁾라고 하고,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⁶⁾라고 하였다. 여기서 端은 '端緒'⁷⁾의 뜻으로 人間의 本性인 仁義禮智를 드러내기 위한 뜻으로 解釋할 수 있다. 즉, 四端을 擴充하면 仁義禮智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李濟馬는 "聖人の 臟도 四端이요, 衆人の 臟도 四端이다"라 했고 "五臟의 肺脾肝腎은 四維之四象이요, 太少陰陽의 短長 變化는 一同之中에 四偏이 있다"⁸⁾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四端은 곧 四象을 意味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四端에서 '端'은 端緒의 뜻 이외에 '끝'의 意味가 있는바 李濟馬는 이를 四偏(네 가지 치우침), 四維(네 기둥), 四象 등의 概念과 同一視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李濟馬가 四端論이라 題目을 붙인 것은 孟子의 精神을 받아들여 四象人의 特性을 밝힘으로써 人間의 本性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孟子集註上, 公孫丑上, 明文堂, 1992, p.164.

"人之有是四端也 猶人有四體也"

6. 孟子集註上, 公孫丑上, 明文堂, 1992, p.163.

7. 풍우란, 中國哲學史, 螢雪出版社, 1991, p.98.

端을 실마리, 즉 端緒라고 번역하였다. 이것은 朱子의 解釋에 따른 것이다.

8.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原文의 번호는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四象醫學에 따랐음)

2-3.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2-5. 太少陰陽之短長變化 一同之中 有四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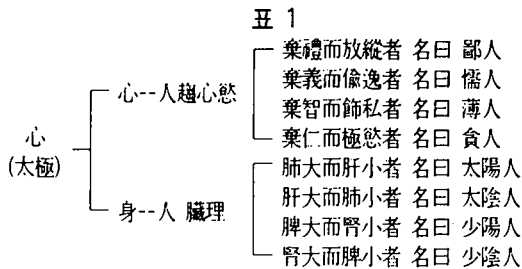
2-6. 聖人之臟 四端也 衆人之臟 四端也.

(2) 四端論의 論理 構造

四端論의 論理 構造를 보면, 우선 本體論의 입장에서의 心身 兩面的 觀點에서 人間을 把握함으로써 四端을 드러내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身的 차원인 人 臟理와 心的 차원인 人 趨心慾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결국 人間의 差等性和 類型性, 不完全性 등을 드러내는 方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性情의 概念을 도입함으로써 四臟의 有機的 關係와 氣의 陰陽 升降에 따른 生理的, 病理的 關係를 밝혔다. 결국 人間의 不完全性은 性情의 偏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克服하는 方法으로 中庸的 精神精神인 喜怒哀樂의 知行的 中節을 제시하였다.

① 本體論의 觀點에서의 心身 兩面的 觀察

李濟馬는 「格致藁」反誠箴에서 “太極은 心이고, 兩儀는 心身이고, 四象은 事心身物이다”⁹⁾라고 함으로써 모든 現狀과 事物은 四象, 즉 事心身物로 歸納되어 진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宇宙 現狀, 社會 現狀, 人體 現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複合的인 四象 構造를 形成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¹⁰⁾ 이러한 本體論의 觀點은 性命論에서는 ‘天人性命’이라는 構造로 논의되고, 四端論에서는 人間을 心的인 측면인 人 趨心慾과 身的인 측면인 人 臟理로 구분된다. 그 關係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② 性情의 概念을 도입

李濟馬는 四象人 臟腑 偏差를 설명하기 위해서 哀怒喜樂 性情의 概念을 도입하여 설명하였고, 性情의 作用 機轉과 陰陽의 特性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2-10.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則 氣注肺而 肺益盛 怒情促急則 氣激肝而 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怒性宏抱則 氣注脾而 脾益盛 哀情促急則 氣激腎而 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喜性廣張則 氣注肝而 肝益盛 樂情促急則 氣激肺而 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 樂性深確則 氣注腎而 腎益盛 喜情促急則 氣激脾而 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 2-13. 哀氣 直升 怒氣 橫升 喜氣 放降 樂氣 陷降
- 2-14. 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 下降 上升之氣 過多則 下焦傷 下降之氣 過多則 上焦傷
- 2-15. 哀怒之氣 順動則 發越而上騰 喜樂之氣 順動則 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 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 順而下降

9. 李濟馬, 「格致藁」反誠箴, 韓國弘方, 1941 (昭和15), p. 114.

“太極 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

10.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 教室, 四象醫學, 集文堂, 1997, p. 66.

2-16. 哀怒之氣 逆動則 暴發而 竝於上也 喜樂之氣 逆動則 浪發而 竝於下也

上升之氣 逆動而 竝於上則 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 竝於下則 脾肺傷

2-22.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 怒情動 怒性極則 哀情動 樂性極則 喜情動 喜性極則 樂情動

太陽人 哀極不濟則 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則 悲哀動中

少陰人 樂極不成則 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則 侈樂無厭

③ 不完全性的 克服

四端論에서는 人稟臟理와 人趨心慾, 哀怒喜樂의 偏急이 人間的 不完全性を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여, 誠身·明知를 통한 知行的 中庸的 調節이 不完全性を 克服하는 方法이라는 점을 암시하였다.

2-20. 天下喜怒哀樂之暴動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而 知人不明也

2-26.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喜怒哀樂未發而 恒戒者 此 非漸近於中者乎 喜怒哀樂已發而 自反者 此 非漸近於節者乎

2. 四端論의 主要 概念에 대한 分析

(1) 人稟臟理

李濟馬는 “人 臟理는 네 가지로서 서로 같지 않으니, 肺大而肝小者를 太陽人이라 하고, 肝大而肺小者를 太陰人이라 하고, 脾大而腎小者를 少陽人이라 하고, 腎大而脾小者를 少陰人이라 한다.”¹¹⁾라고

하여 臟腑의 大小에 따른 네 가지의 先天 體質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는 몇 가지의 意味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四象體質의 稟賦性, 四象體質 例外 不許의 原則, 體質 不變의 原則 등이고 四象體質이 臟腑의 相對的 大小 關係로 규정지어진다는 점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는 人間的 身體的 不完全性を 제시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原文에 근거해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2)

표 2

體質의 稟賦性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 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 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 少陰人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 固無可論
體質 例外 不許의 原則	太少陰陽之臟局短長 四不同中 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 一同也
體質 不變의 原則	太少陰陽之短長變化 一同之中 有四偏 聖人 所以希天也

(2) 人趨心慾

四端論에서 李濟馬는 “棄禮而放縱者 名曰 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 懦人, 棄智而飾私者 名曰 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 貪人”이라 하여 心的인 차원에서 人間的 不完全性を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仁義禮智에 反하는 偏僻된 사람, 즉 心

11.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1.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 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 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 少陰人

慾의 人間으로 나타나는 鄙薄貪懦에 대한 概念을 알아보기 위하여 孟子, 獨行篇, 四端論을 근거로 서로 비교해 보고, 아울러 「格致彙」儒略에 나온 바를 근거로 '四心慾'인 放縱, 飾私, 極慾, 偷逸의 概念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仁義禮智의 概念

孟子的 公孫丑上에 보면 “인간은 남의 고통을 차마 못 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惻隱之心은 仁의 端이요, 羞惡之心은 義의 端이요, 辭讓之心은 禮의 端이요, 是非之心은 智의 端이요, 이것이 四端인데 擴而充之하면 仁義禮智 四德이 된다”¹²⁾고 하였다. 이것을 朱子は “惻隱, 羞惡, 辭讓, 是非는 情이고, 仁義禮智는 性이고 心은 通性情한다. 性은 心之理요, 情은 心之用이다”¹³⁾라고 하였다. 따라서 仁義禮智란 결국 事物이나 人間에 모두 있는 理致와 같은 本性으로서 설명하고 있고, 性理學의 傳統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별다른 저항 없이 견지되어 온 概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李濟馬는 「格致彙」獨行篇에서 仁義禮智에 대해 四物類의 視覺으로 재해석했다. 그래서 尹¹⁴⁾이 말하기를 “李濟馬는 仁義禮智 四端의 속성을 하나의

실체인 仁者, 義者, 禮者, 智者라고 하여 四端의 概念을 정리했다”라고 하였다. 즉 人間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本性적인 四端으로 解釋을 하는 게 아니고, 禮者는 밝고 마땅함(顯允)과 꾀(有謀)와 충성함(有忠)이고, 仁者는 편안함(樂易)과 포용함(有容), 믿음(有信)이라 하고, 義者는 정돈하여 가지런함(整齊)과 능함(有能)과 마땅함을 세움(有立)이고, 智者는 마음이 넓고 작은 일에 개의하지 않음(闊達)과 재주(有才)와 용기(有勇)로 규정지었다.¹⁵⁾

② 鄙薄貪懦의 概念

우선 鄙薄貪懦의 語源이 되는 孟子에서 鄙薄頑懦의 뜻을 살펴보고 獨行篇과 四端論에서 나온 鄙薄貪懦와 仁義禮智의 關係를 살펴보기로 한다.

鄙薄頑懦는 仁義禮智와 마찬가지로 孟子的 盡心章下에서 찾아볼 수 있다.

“柳下惠의 풍도를 들은 자들은 鄙夫가 너그러워지며, 薄夫가 인심이 敦篤해지고, 伯夷의 풍도를 들은 자들은 頑夫가 청렴해지고 懦夫가 立志를 갖게 된다”¹⁶⁾고 하였다.

즉, 柳下惠는 聖人之和者¹⁷⁾로서 이로부터 鄙夫, 薄夫를 이야기했고, 伯夷는 聖人之清者¹⁸⁾이며 이로

12. 孟子集註上, 公孫丑上, 明文堂, 1992, p. 163.

“孟子曰 人皆有 不忍之心 ……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13. 上揭書, 163.

“惻隱 羞惡 辭讓 是非 情也 仁義禮智 性也 心 通性情者也 因其情之發 而性之本然 可得而見 猶有物在中而緒見於外也”.

14. 尹德泳·高炳熙, 獨行篇에 나타난 鄙薄貪懦者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8-1, 1996, p. 58-59.

15. 「格致彙」獨行篇 前揭書 p. 118.

禮者顯允 仁者樂易 義者整齊 智者闊達 禮者有謀 仁者有容 義者有能 智者有才.

謀者有忠 容者有信 能者有立 才者有勇.

16. 孟子集註下, 盡心章下, 明文堂, 1992, p. 350.

“孟子曰 聖人 百世之師也 伯夷柳下惠 是也 故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 聞柳下惠之風者 薄夫敦 鄙夫寬 奮乎百世之上 百世之下 聞者 莫不興起也 非聖人而能若是乎 而況親炙之者乎”.

17. 孟子集註下, 萬章章下, 明文堂, 1992, p. 110.

18. 上揭書 p. 110.

부터 頑夫, 懦夫를 설명했다.

盡心章¹⁹⁾을 토대로 보면 鄙薄頑懦를 鄙薄貪懦라고 기재를 해 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鄙薄貪懦와 鄙薄頑懦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려된다.

鄙薄頑懦의 각각의 뜻을 우선은 盡心章에 나온 것을 토대로 살펴보면 鄙, 薄, 頑, 懦는 관대하지 않고, 후덕하지 않고, 청렴하지 않고, 지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不容, 不厚, 苟取, 苟安²⁰⁾이라고 解釋할 수 있다. 또한 萬章章下를 보면 鄙, 薄, 貪, 懦를 狹陋, 不厚, 無知覺(無分別), 柔弱²¹⁾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표 3

四夫之心	盡心章에 나타난 意味		萬章章에 나타난 意味
鄙	不寬	不容	狹陋
薄	不敦篤	不厚	不厚
頑	不廉	苟取	無知覺(無分別)
懦	不立志	苟安	柔弱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한편 獨行篇에 나와 있는 鄙薄貪懦者의 뜻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鄙者是 더럽고 탐하며(陋婪) 忠者和 公器를 다투고, 薄者は 교활하고 어기며(狡回) 信者和 時世를 다투고, 貪者は 교만하고 거스르며(驕橫) 廉者和 地局을 다투고, 懦者は 속이고 거짓(詐僞)을 하며 解者和 處勢를 다툰다”²²⁾라고 하여 李濟馬가 仁義禮智를 자신의 시각으로 再解釋했듯이 鄙薄貪懦도 또한 그러한 시각으로 정리했음을 알 수 있다.

尹²³⁾은 이것을 李濟馬의 仁義禮智者和 鄙薄貪懦者를 서로 연관시켰고, 孟子的 鄙薄頑懦夫와 李濟馬의 獨行篇에 나와 있는 鄙薄貪懦者와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표4)

이와 같이 鄙薄頑懦夫와 鄙薄貪懦者는 柳下惠와 伯夷의 행동을 근거로 살펴볼 때 서로 연관성이 있고²⁴⁾, 鄙薄貪懦者는 禮仁義智에 反하는 人間으로 보았다.

표 4

聖人	孟子에 나타난 鄙薄頑懦의 概念	格致藁에 나타난禮仁義智者	格致藁에 나타난 鄙薄貪懦者
柳下惠 聖人之和也	鄙：不寬 -- 不容 -- 狹陋	禮者 顯允 忠者	鄙者 與忠者 爭公器
	薄：不敦篤 -- 不厚 -- 不厚	仁者 樂易 信者	薄者 與信者 爭時世
伯夷 聖人之清也	頑：不廉 -- 苟取 -- 無知覺(無分別)	義者 整齊 廉者	貪者 與廉者 爭地局
	懦：不立志 -- 苟安 -- 柔弱	智者 闡達 解者	懦者 與解者 爭處勢

19. 孟子集註下, 盡心章下, 明文堂, 1992, p. 351.

註：…… 易見且 白世之貪懦鄙薄者……

20. 上揭書, 盡心章下, p. 350.

21. 上揭書, 萬章章下, p. 107-110.

22. 「格致藁」獨行篇 p. 120.

鄙者陋 薄者狡回 貪者驕橫 懦者詐僞.

鄙者 與忠者 爭公器 薄者 與信者 爭時世 貪者 與廉者 爭地局 懦者 與解者 爭處勢.

23. 尹德泳·高炳熙, 獨行篇에 나타난 鄙薄貪懦者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8-1, 1996, p. 60.

24. 尹德泳·高炳熙, 獨行篇에 나타난 鄙薄貪懦者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8-1, 1996, p. 59-60.

한편 四端論에서 제시한 仁義禮智와 鄙薄貪懦人과의 關係는 人趨心慾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다시 孟子的 鄙薄頑懦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5)

四端論의 뜻을 孟子的 四夫之心과 연계하여 解釋

표 5

孟子에 나타난 鄙薄頑懦의 概念	四端論에서 나타난 鄙薄貪懦人
鄙: 不寬 -- 不容 -- 狹陋	棄禮而放縱者 名曰 鄙人
薄: 不敦篤 -- 不厚 -- 不厚	棄智而飾私者 名曰 薄人
頑: 不廉 -- 苟取 -- 無知覺(無分別)	棄仁而極慾者 名曰 貪人
懦: 不立志 -- 苟安 -- 柔弱	棄義而偷逸者 名曰 懦人

을 한다면, 棄禮는 禮義나 格式이 없이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나아가려고만 하는 太陽人의 屬性이고, 棄智는 교양이나 지혜가 없고 항상 일만 많이 벌리려는 輕薄한 少陽人을 意味할 것이고, 棄仁은 자비로움과 어짐이 없는 인색하고 욕심만 차리려는 太陰人의 屬性이고, 棄義는 義理를 저버리고 구차하게 安逸을 좇는 少陰人을 意味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살펴보면 四端論과 獨行篇의 仁義禮智와 鄙薄貪懦와의 관계는 相互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獨行篇에서는 仁義禮智의 새로운 概念을 도입해서 그 屬性을 四分類的으로 解釋을 했다면, 四端論에서는 의미상 四夫之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며 擴充論에 나올 性氣와 情氣의 概念까지 어느 정도 포함하여 분류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는 「格致藁」 獨行篇이 주로 獨行의 方法으로서 '知人' 즉 '知人之心慾'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鄙薄貪懦者를 언급했다면, 四端論에서는 이러한 概念의 연장선에서 心慾的 四端을 드러내 人間의 不完全性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언급된 까닭이라 생각된다.

③ 四心慾 (放縱, 飾私, 極慾, 偷逸)의 概念

李濟馬는 「格致藁」 儒略²⁵⁾에서 사람이 止行覺決 (개인적 행위)할 때 나타나는 心慾을 謗詐侈懶라 하여 개인적 수행 덕목인 勤能慧誠을 방해하는 요인이라 하고, 居群合(聚)散(사회적 행위)할 때 나타나는 心慾을 私慾放逸이라 하여 사회적 실천 덕목인 仁義禮智를 방해하는 요인이라 하였다. 「格致藁」 儒略의 내용을 볼 때 勤能慧誠과 謗詐侈懶는 獨行(身, 行)에 해당되고, 仁義禮智와 私慾放逸은 知(心)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四端論에서는 知(心)에 해당되는 것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6)

飾私, 極慾, 放縱, 偷逸 네 가지 心慾은 이러한 私慾放逸 概念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四端論에서는 仁義禮智와 私慾放逸의 四心慾과 鄙薄貪懦를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棄禮而放縱者 名曰 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 懦人 棄智而飾私者 名曰 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 貪人” 등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25. 「格致藁」 儒略 p.3-4.

一物止也, 一身行也, 一心覺也, 一事決也.
 勤以止也, 能以行也, 慧以覺也, 誠以決也.
 萬物居也, 萬身群也, 萬心聚也, 萬事散也.
 仁以居也, 義以群也, 禮以聚也, 智以散也.
 蓄心偏也, 詐心倚也, 侈心過也, 懶心不及也.
 私心味也, 慾心闕也, 放心窒也, 逸心罔也.

표 6

四端論	「格致彙」儒略					
	개인적			사회적		
四心慾	개인적 행위	심욕	수행 덕목	사회적 행위	심욕	수행 덕목
飾私(智)	止	嗇	勤	居	私	仁
極慾(仁)	行	詐	能	君	慾	義
放縱(禮)	覺	侈	慧	合(聚)	放	禮
儉逸(義)	決	懶	誠	散	逸	智

(3) 浩然之氣, 浩然之理

李濟馬는 “浩然之氣는 肺脾肝腎으로부터 나오고, 浩然之理는 心으로부터 나온다”²⁶⁾고 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關係로서 四端論의 浩然之氣와 浩然之理를 分析하고 論議하였다. (표7)

표 7

心	┌	心-人趨心慾: 一心之慾: 明而辨之則 浩然之理 出
		身-人稟臟理: 肺脾肝腎之氣: 擴而充之則 浩然之氣 出

浩然之氣는 孟子의 公孫丑上에 그 語源이 있고, 浩然之氣·浩然之理는 程朱學派의 理氣의 概念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이다.

孟子²⁷⁾는 “浩然之氣를 지극히 크고 강한 기운으로 義를 쌓아 된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韓²⁸⁾은 浩然之氣와 浩然之理에 대

해 전통 性理學 理論처럼 理는 根本으로, 氣는 理의 使役者로서 把握했는데 반해 李²⁹⁾는 이에 대해 浩然之氣는 仁義禮智의 實踐의 德目的 生氣로 把握하고, 浩然之理는 心慾을 明辨하여 나오는 理致로 보고 性理學의 理氣로서 把握하지는 않았으며, 孫³⁰⁾은 儒學의 理가 절대적인 자연의 理致인 것과는 달리 李濟馬의 理는 氣와 상대적인 概念으로서 수평 關係를 가지며, 心身의 關係처럼 서로 의존하고 보완하는 關係로 보았다.

李濟馬는 兩義의 차원에서 人稟臟理와 人趨心慾을 말하고 다시 太少陰陽人과 鄙薄貪儒人을 나누었는데, 이는 태어날 때부터 偏僻된 狀態로서 擴而充之하고 明而辨之해야 되는 대상임을 暗示한다. 그래서 仁義禮智를 觀念의이 아닌 實踐으로 行해야 한다는 의미로 身的인 측면에서 擴充해야 한다는 뜻으로 浩然之氣를 언급했고, 心的인 측면에서 心慾을 明辨해야 한다는 뜻에서 浩然之理를 언급하고 대비시킨 것이지, 程朱學派처럼 理와 氣를 수직적인 關係로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人間의 不完全性을 극복하는 方法으로 心身 兩面的 關係로 언급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4) 哀怒喜樂의 性情의 概念

① 性情의 概念

性情은 儒學의 人性論의 주된 概念으로서, 「禮記」禮運³¹⁾에서는 “何謂人情 喜怒哀懼愛惡慾七者”라

26.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8. 浩然之氣 出於肺脾肝腎也 浩然之理 出於心也.
27. 孟子集註上, 公孫丑上, 明文堂, 1992, p.129-134
“敢問夫子 惡乎長? 曰 我知言, 我善養吾浩然之氣. 敢問何謂 浩然之氣? 曰 難言也.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於天地之間.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也. 是集義所生者, 非義襲而取之也”.
28. 韓東錫, 東醫壽世保元註釋, 誠理會出版社, 1967, p. 66.
29. 洪淳用·李乙浩, 四象醫學原論, 杏林出版社, 1994, p. 43.
30. 孫祥坤·金達來, 儒學者들의 心性情과 李濟馬의 性情氣에 관한 文獻的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8-2, 1996, p. 24.
31. 周禮 儀禮 禮記, 岳麓書社, 長沙, p. 371.

하였고, 「荀子」³²⁾에서는 愛惡喜怒哀樂의 六情을 말했다. 한편 「內經」에서는 怒喜思憂恐의 五志와 悲驚의 둘을 합하여 七情이라 하였는데, 모두 七情을 감정의 통칭으로 사용하였다.

그후 宋代 性理學에서는 “性則理”, “情者性之動也”라하여 性を 天理로서, 情을 마음이 事物에 응하여 나타나는 감정으로 보았다. 즉 性은 仁義禮智 四端으로, 情은 喜怒哀懼愛惡慾이라는 七情으로 구별하여 人性을 論하였다.³³⁾

한편, 四象醫學에서는 性情의 概念을 內經의 七情이나, 性理學에서의 四端七情이라는 概念보다는 事心身物이라는 事物類의 要約 精神에 의해 哀怒喜樂으로 새롭게 설정하였다. 이는 中庸³⁴⁾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의문시되는 것은 性情을 醫學에 適用하면서 왜 傳統的인 七情³⁵⁾을 버리고 굳이 中庸의 四情으로서 사람의 감정을 總括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을 池³⁶⁾는 李濟馬의 哲學 체계가 四元構造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배당하기 위

하여 四情을 택하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氣學的으로 합당한 理致가 있다고 했다. 喜怒哀樂은 각 감정의 상태에서 氣의 升降하는 운동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 愛惡慾은 순수한 心慾의 표현으로서 氣動의 방향을 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李濟馬의 氣概念에서는 기존의 七情 概念 중에서 喜怒哀樂만이 채택되고 愛惡慾은 제외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李濟馬의 心慾 概念과 근사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을 참작할 때, 四象醫學에 性情의 概念이 도입된 것은 儒學에 있어서 中庸의 中和의 대상으로서의 概念과 內經의 生氣論的 概念³⁷⁾을 동시에 갖는 概念으로서 도입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기존의 性理學에서는 性情을 心的 차원에서 언급하였고, 內經에서는 身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生氣論的 차원, 즉 身的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면, 李濟馬는 이를 心身 兩面的 關係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概念, 즉 心的 차원과 身的(生氣論的) 차원을 포

32. 「荀子」天論.

“性之好惡喜怒哀樂謂之情”.

33.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敎室, 四象醫學, 集文堂, 1997, p. 84.

34. 中庸, 明文堂, 1988, p. 2.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35. 李忠烈, 情緒分類에 대한 東西比較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8, p. 5-9.

「孔子」는 喜怒哀懼愛惡慾의 七情, 「老子」는 喜怒哀悲好憎慾의 七情, 「荀子」는 好惡喜怒哀樂의 六情, 「左傳」은 好惡喜怒哀樂의 六志, 「呂氏春秋」는 喜怒哀恐哀의 五志, 「內經」은 喜怒哀思悲驚恐의 七種情緒, 「陳無擇·三因方」에서는 喜怒哀思悲驚恐의 七種情緒를 명확히 하였다. 「劉河間」은 好喜悲思恐의 五臟之志, 「張子和」는 怒喜悲恐驚思의 情緒, 「李」은 暴喜 暴怒 積憂 過思라고 하였다.

36. 池圭鎔·安主錫, 東醫壽世保元 四端論中 四情의 作用棋戰 및 病理變化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5-1, 1993, p. 61.

37. 黃帝內經, 張隱庵·馬元臺 合註.

「素問·痿論」“悲哀太甚, 卽胞絡絕”.

「素問·解精微論」“悲哀則泣下”.

「靈樞·五津液別」“悲哀氣并則爲泣”.

「素問·舉痛論」“怒則氣上”, “怒則氣逆”.

「素問·藏氣法時論」“肝病者 兩脇下痛引小腹 令人善怒”.

「素問·舉痛論」“喜則氣緩”, “喜則氣和志達 營衛通利”.

괄하는 概念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性理學에서 性과 情을 善惡의 차원으로 區分한 것이 意味가 없어지고, 단지 心身의 不均衡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이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8)

표 8

內 經	情과 臟腑와의 關係	情一身(臟腑)
性 理 學	心性情의 關係	心通性情 / 性 = 理 (善) ↓ \ 情 = 氣質 (善惡)
四象醫學	性情과 心身의 關係	心 // 性情 ↓↓ \\ 身
	理想的인 心身과 性情의 關係	性情的 中節 / 心 = 浩然之理 出 ↓↓ \ 身 = 浩然之氣 出

② 性情의 作用 機轉

李濟馬의 哀怒喜樂 性情의 중심 사상은 氣의 四象類型的 分化像³⁸⁾에 있는데, 이는 肺脾肝腎의 大小를 形成하는 原理가 된다.

性情이 生氣論의 作用할 때 哀怒喜樂에 氣의 概念이 포함되어 그것은 性氣나 情氣로 표현되는

데, 四氣 중에서 哀氣와 怒氣는 다같이 上升하는 氣로서 哀氣는 直升하고 怒氣는 橫升한다. 喜氣와 樂氣는 다같이 下降하는 氣로서 喜氣는 放降하고 樂氣는 陷降한다.³⁹⁾ 따라서 哀怒之氣는 陽氣로서 표현할 수 있고, 喜樂之氣는 陰氣로서 표현할 수 있다.⁴⁰⁾ 이러한 機轉을 池⁴¹⁾는 肺脾肝腎之氣와 哀怒喜樂之氣의 氣動論的 相合作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는 “哀氣는 上動之氣이고, 怒氣도 布兩脇하는 上逆上噴之氣라하여 李濟馬의 ‘哀怒之氣 上升’이라는 것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또한 喜氣는 중심으로부터 下方으로 완만하게 넓게 퍼져 臍腹으로 放降하는 것이라 하였고, 樂氣는 깊이 耽溺하여 直下方 前陰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기운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氣動 樣態는 肝腎의 氣局概念 및 肝의 吸氣作用과 腎의 出氣作用이 相合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 哀氣와 怒氣는 相成하고 喜氣와 樂氣는 相資한다. 上升之氣가 過多하여 逆動하면 下焦를 傷하므로 肝腎이 傷하게 되고, 下降之氣가 過多하여 逆動하면 上焦를 傷하게 되어 脾肺가 傷하게 된다.⁴²⁾

따라서 四氣의 上升下降하는 氣運은 臟腑의 大小 偏差 및 生理, 病理가 발생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이는 氣裏形表의 精神에 따라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등에 그대로 나타나게 됨을 알

38.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4-1, 1992, p. 20.

39.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14. 喜樂之氣 下降 哀怒之氣 上升.

2-13. 哀氣 直升 怒氣 橫升 喜氣 放降 樂氣 陷降.

40.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15. 哀怒之氣 陽也 喜樂之氣 陰也.

41. 池圭鎔·安圭錫, 東醫壽世保元 四端論中 四情의 作用棋戰 및 病理變化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5-1, 1993, p. 61-62.

42.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22. 哀怒相成 喜樂相資.

2-14. 上升之氣 過多則 下焦傷 下降之氣 過多則 上焦傷.

수 있다.

3. 性命論과 비교를 통한 四端論의 人間觀에 대한 考察

性命論은 李濟馬의 哲學的 원리가 原則論的인 것과 目的論的인 것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人間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대한 李濟馬의 新人間觀이다. 특히 性命의 概念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性理學 사상인 '性則理'로서 보는 시각보다는, 性과 命을 하늘에서 함께 받는다고 해서 서로 대등한 關係로 把握했다.

性命論에서는 人間을 '天人性命'이라는 本體論的 觀點으로 바라보았는데, 天은 人間을 중심으로 外部環境的인 조건이고, 人은 人間이 당연히 해야 될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性命은 慧覺과 資業으로 설명되고, 이를 知行으로서 實踐하며 知行을 쌓아서 道德이 되고 人性이 된다⁴³⁾고 했으니, 결국은 知行을 통해 性命을 유지함을 말한다. 즉 天人은 當爲性이며 原則論이라면 性命은 目的論的인 것이다.

李濟馬는 人間의 心性을 好善, 惡惡, 邪心, 怠心의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자율적 노력인 存心養性

과 修身立命⁴⁴⁾으로서 聖人에 도달할 수 있다는 '下學而上達', '學而知之'의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인격의 등급을 知, 賢, 愚, 不肖로 보고, 이는 責心責氣의 정도에 따라 心體의 清濁과 氣宇의 強弱이 결정되고 인격의 등급이 정해진다⁴⁵⁾고 보았다. 한편, 性命論에서 이와 같이 제시된 人間觀은 四端論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四端論은 앞에서 제시한 論理構造의 分析에서도 드러났듯이 心身兩面的으로 人間을 把握했고, 不完全性和 差別性, 즉 類型性을 제시하여 이의 克服方法으로 性情의 中庸的 調節을 제시함으로써 倫理的, 哲學的 차원의 人間觀을 醫學的 차원으로 끌고 갔음을 알 수 있다. 앞의 論理構造에 대한 分析을 통해 살펴본 바대로 도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差別性(類型性)

人 臟理 — 太少陰陽人

人 趨心慾 — 鄙薄貪懦人

② 不完全性

太少陰陽之短長變化 一同之中 有四偏 聖人 所以希天也

鄙薄貪懦之清濁闊狹 萬殊之中 有一同 衆人 所以希聖也

43.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34.

好人之善而 我亦知善者 至性之德也 惡人之惡而 我必不行惡者 正命之道也. 知行積則 道德也 道德成則 仁聖也 道德非他 知行也 性命非他 知行也.

44.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26.

人之耳目鼻口 好善之心 以衆人耳目鼻口論之則 堯舜 未爲加一鞭.

人之肺脾肝腎 惡惡之心 以堯舜肺脾肝腎論之則 衆人 未爲少一鞭.

人皆可以爲堯舜者 以此.

人之臆膺腹之中 誦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 養其性 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臂之中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 立其命 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人皆自不爲堯舜者 以此.

4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37.

存其心者 責其心也 心體之明暗 雖若自然而 責之者 清 不責者 濁.

馬之心覺 於牛者 馬之責心 於牛也 膺之氣勢 猛於 膺之責氣 猛於 也.

心體之清濁 氣宇之強弱 在於牛馬 膺者 以理推之而 猶然 況於人手.

③ 不完全性的 극복 방법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行身不誠而 知人不明 → 誠身·明知 → 喜怒哀
 樂의 中節
 性情의 概念을 도입하여 이것의 극복 방법으로
 誠身, 明知를 통한 知行의 中庸的 調節 精
 神을 드러냄

결국, 性命論에서는 本體論의 입장에서 知行에
 의한 聖人의 길을 原則論的, 目的論的으로 제시했
 다면, 四端論에서는 方法論的인 것을 제시했다.
 즉, 四象哲學의 目的을 實踐하기 위한 구체적인 方
 法이 醫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當爲性을 제시
 한 部分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Ⅲ. 總括 및 考察

李濟馬의 四象醫學은 先秦 洙泗學이나 기존 性理
 學에서 탈피하고 實學에 바탕을 둔 改新儒學의 思
 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人間의 倫理 道德에 기초
 한 哲學을 背景으로 하고, 喜怒哀樂의 升降原理에
 입각하여 형성된 醫學이라고 할 수 있다.

李濟馬의 哲學的 諸概念들이 「格致藁」를 통해 드
 러났다면, 性命論에서는 그러한 哲學的인 概念들이
 人體의 構造와 結合되고 責心 責氣를 통한 知行을
 쌓아 '下學而上達' 하는 自律的 知行을 통한 性命의
 完成을 이루는 人間觀을 제시하였고, 그러한 目標
 를 실행하기 위한 方法論的인 내용이 四端論에 '體
 質的 知行'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東醫壽世保元」
 의 原理篇에 해당하는 性命論과 四端論은 李濟馬의
 四象醫學의 人間觀의 중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앞의 四端論의 論理 構造와 主要
 概念을 통해 四端論의 人間觀을 살펴본 결과 다음

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四端에서 端은 '端緒'의 뜻으로 人間의 本性인
 仁義禮智를 드러내기 위한 方法인데, 李濟馬가 말
 하는 四端은 곧 四象을 意味하는 것으로 四偏(네
 가지 치우침), 四維(네 기둥), 四象 등의 概念과 同
 一視 했다. 그러므로 四端論이라 題目을 붙인 것은
 孟子의 精神을 받아들여 四象人의 特性을 밝힘으로
 써 人間의 本性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四端論의 論理 構造는 우선 本體論의 觀點에서의
 心身兩面的인 觀察과 臟腑偏差를 설명하기 위해 性
 情을 도입하였고 人間의 不完全性的 克服 方法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李濟馬는 「格致藁」反誠箴에서 모든 現狀과
 事物은 四象, 즉 事心身物로 歸納되어 진다고 설명
 하고 있고, 性命論에서는 '天人性命'이라는 構造로
 논의되는데, 四端論에서는 本體論의 입장인 則物의
 차원에서 心身 兩面的 觀點에서 四端을 드러냈다.
 身的 차원에서 人稟臟理를, 心的 차원에서 人趨心
 慾을 제시했고, 이것은 결국 人間의 差等性和 類型
 性, 不完全性 등을 드러내는 方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性情의 概念을 도입하여 四臟의 有機的 關
 係와 氣의 陰陽 升降에 따른 生理的, 病理的 關係
 를 밝혔는데 이것은 결국 人間의 不完全性은 性情
 의 偏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이를
 克服하는 方法으로 喜怒哀樂의 中節을 통한 中庸的
 精神을 제시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四端論의 主要 概念中 먼저 人稟臟理에 관한 내
 용에는 몇 가지의 意味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 四
 象體質의 稟賦性, 둘째 四象體質 例外 不許의 原
 則, 셋째 體質 不變의 原則 등이고, 결국 이는 人
 間의 身體的 不完全性을 제시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人趨心慾은 放縱, 飾私, 偷逸, 極慾 등의

心慾에 따라 鄙人, 儒人, 薄人, 貪人으로 나누어진 다 하여 心的인 차원에서 人間の 不完全性を 제시한 하였다.

仁義禮智의 概念은 孟子의 公孫丑上에 語源이 있고, 결국 事物이나 人間에 모두 있는 理致와 같은 本性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李濟馬는 「格致藁」 獨行篇에서 仁義禮智 四端의 속성을 하나의 실체인 仁者, 義者, 禮者, 智者로서 나타냈다.

鄙薄貪儒의 概念도 역시 孟子의 四夫之心인 鄙薄頑懦夫에서 연유했고, 또한 獨行篇에서는 鄙薄貪儒者로 제시되어 있는데 鄙薄頑懦夫와 鄙薄貪儒者는 서로 연관성이 있고, 鄙薄貪儒者는 禮仁義智를 잘못하는 人間으로 보았다. 한편 四端論에서 제시한 仁義禮智와 鄙薄貪儒人과의 關係는 人趨心慾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本論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四端論과 獨行篇의 仁義禮智와 鄙薄貪儒와의 관계는 상호 차이가 있으나, 이는 「格致藁」 獨行篇이 주로 獨行의 方法으로서 '知人' 즉 '知人之心慾'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鄙薄貪儒者를 언급했다면, 四端論에서는 이러한 概念의 連想선에서 心慾의 四端을 드러내 人間の 不完全性を 제시하는 차원에서 언급된 까닭이라 생각된다.

四心慾에 대해서 李濟馬는 「格致藁」 儒略에서 사람이 止行覺決(개인적 행위)할 때 나타나는 心慾을 嗇詐侈懶라하여 개인적 수행 덕목인 勤能慧誠을 방해하는 요인이라 하고, 居群合(聚)散(사회적 행위)할 때 나타나는 心慾을 私慾放逸이라 하여 사회적 실천 덕목인 仁義禮智를 방해하는 요인이라 하였다. 따라서 飾私, 極慾, 放縱, 偷逸 등 네 가지 心慾은 이러한 私慾放逸 概念의 連想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浩然之氣와 浩然之理는 身的인 측면에서 擴充해야 한다는 뜻으로 浩然之氣로서 언급했고, 心的인 측면에서 心慾을 明辨해야 한다는 뜻에서 浩

然之理를 대비시킨 것인데, 이것은 人間の 不完全性を 극복하는 方法으로 언급된 내용이다.

性情은 儒學의 人性論의 주된 概念으로 初期의 人性論은 사람의 本性이 善하나 惡하나에 대한 논쟁이었으나 그후 宋代 性理學에서는 性是 仁義禮智 四端으로, 情은 喜怒哀懼愛惡慾이라는 七情으로 구별하여 人性을 論하였다. 한편, 四象醫學에서는 事心身物이라는 事物類의 要約精神에 의해 喜怒哀樂으로 새롭게 설정하였다. 四象醫學에 性情의 概念이 도입된 것은 儒學에 있어서 中庸의 中和의 대상으로서의 概念과 內經의 生氣論의 概念을 동시에 갖는 概念으로 心的 차원과 身的(生氣論의) 차원 모두 다 포괄하는 概念이다. 또한 四氣의 上升下降하는 氣運은 臟腑의 大小偏差 및 生理, 病理가 발생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이는 氣裏形表의 精神에 따라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등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性命論과 四端論의 人間觀을 비교해 볼 때, 性命論은 李濟馬의 哲學的 原理가 原則論的인 것과 目的論的인 것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人間을 '天人性命'이라는 本體論的 觀點으로 바라보았으며, 人間の 心性을 好善, 惡惡, 邪心, 怠心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또한 인격의 등급을 知, 賢, 愚, 不肖로 보고, 이는 賁心賁氣의 정도에 따라 心體의 淸濁과 氣宇의 強弱이 결정되어 人格의 등급이 정해진다고 하였다. 결국, 性命論에서는 本體論的 입장에서 知行에 의한 聖人의 길을 原則論的, 目的論的으로 제시했다.

이에 비하여 四端論은 心身 兩面的으로 人間을 把握했고, 差別性和 類型性, 不完全性を 제시하여 이의 克服 方法으로 性情의 中庸의 調節을 제시함으로써 倫理的, 哲學的 차원의 人間觀을 醫學的 차원으로 끌고 갔다. 즉 方法論的인 것을 제시하여 四象哲學의 目的을 實踐하기 위한 구체적인 方法이

醫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當爲性을 제시한 部分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IV. 結 論

四端論에 제시된 李濟馬의 人間觀을 알아보기 위해 四端의 意味와 四端論의 論理構造에 대해 分析하고, 四端論에 언급된 主要 概念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四端의 意味를 李濟馬는 四偏, 四維, 四象 등의 概念으로 보아 人間の 差等性과 類型性을 나타내려 했다. 따라서 四端論이라 제목을 붙인 것은 四象人의 특성을 밝힘으로서 人間の 本性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兩儀의 차원에서 人間을 身的인 측면인 人臟理로서 太少陰陽人과 心的인 측면인 人趨心慾으로서 鄙薄貪懦人으로 나누어 人間の 差別性과 類型性을 제시함으로써 不完全性을 드러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3. 性情의 概念은 性理學에서는 心的인 차원에서 언급하였고, 內經에서는 身的(生氣論的)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면, 四端論에서는 儒學, 특히 中庸의 概念과 內經의 生氣論의 概念을 모두 받아들여 心身 兩面的으로 關係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 개념으로 사용함으로써 四象醫學의 原理에 있어서 重要한 概念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4. 喜怒哀樂 四氣의 升降 氣運에 의해 臟腑의 大小 偏差 및 生理, 病理가 발생하는 원동력이 되며, 이는 氣裏形表의 精神에 따라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등에 나타나게 된다.

5. 李濟馬가 제시한 浩然之氣와 浩然之理는 전통적인 性理學의인 理論과는 다른 實踐的이고 生氣論的 概念으로서, 理와 氣를 대등한 關係로 보았으

며, 이것은 人間の 不完全性을 克服하는 方法으로 제시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6. 四端論에서는 人間の 不完全性을 克服하는 方法으로 喜怒哀樂의 知行적 中節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心慾을 明知(明辨)하여 浩然之理를 유지하고 肺脾肝腎의 氣를 擴充(獨行)하여 浩然之氣를 기를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7. 性命論에서는 原則論의이며 目的論的인 人間觀이 제시되었다면, 四端論에서는 差別性과 類型性, 不完全性을 드러내어 이의 克服 方法으로 性情의 中庸的 調節 精神을 제시함으로써 方法論的인 人間觀이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醫學的 方法論이 나올 수 있었다고 思慮된다.

參 考 文 獻

1. 孟子集註上, 公孫丑上, 明文堂, 1992.
2. 中庸, 明文堂, 1988.
3. 周禮 儀禮 禮記, 岳麓書社, 長沙.
4. 張馬合註, 黃帝內經.
5. 풍우란, 中國哲學史, 螢雪出版社, 1991.
6.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杏林出版社, 1994.
7. 李濟馬, 格致藁, 韓國弘方, 1941.
8. 宋一炳, 알기 쉬운 四象醫學, 하나미디어, 1993.
9. 宋一炳, 東武 李濟馬의 學文 思想, 四象醫學會誌, VOL8-2, 1996.
10. 洪淳用·李乙浩, 四象醫學原論, 杏林出版社, 1994.
11.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 教室, 四象醫學, 集文堂, 1997.
12. 尹德泳·高炳熙, 獨行篇에 나타난 鄙薄貪懦者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8-1, 1996.

13. 韓東錫, 東醫壽世保元註釋, 誠理會出版社, 1967.
14. 孫祥坤·金達來, 儒學者들의 心性情과 李濟馬의 性情氣에 관한 文獻的 考察, 四象 醫學會誌, VOL8-2, 1996.
15. 李忠烈, 情緒分類에 대한 東西比較 考察, 경희 대학교 대학원, 1988.
16. 池圭鎔·安圭錫, 東醫壽世保元 四端論中 四情의 作用 機轉 및 病理變化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5-1, 1993.
17.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4-1, 1992.
18. 趙晃晟, 性情과 表裏證과의 關係, 四象醫學會誌 VOL5-1, 1993.